

## 기문 [記文]

1977\_송흥섭(宋興燮) 지음\_38.0×89.0cm



무성서원의 장의(掌議)인 오방환(吳邦煥)의 학덕과 희사를 기념하기 위해 작성된 기문이다. 1977년에 작성되었으며 송흥섭(宋興燮)이 지었다.

先哲民之先覺而百世之師也人心賴而淑焉世道賴以明焉其垂功也可不謂之遠且深乎此所以隨其功之小大或配于文廟或享于鄉祠者也夫先哲之覺斯民者無他明其五品而已五品明則天下平不明則天下亂今夫斯教不明而世級降侮聖賢賤經典滔滔胥奔於利海邪道望望然莫知返焉嗚呼此曷故焉本院掌議有海州吳邦煥樹灘諱允謙之后也性本樸實而慕先哲之誠深豐捐漿盛代全供丁巳春享之需使人人皆若是人心何患其不淑世道何患其不明乎標範于世可使作也本院諸任齊謂若是懿行不可湮沒要不佞以識之竊附夫慕顯揚善之義敢述如右素文者金煥吉金東述云

歲丁巳春仲月 後學礪山宋興燮小識

執綱 林洪圭 宋榮達

掌議 崔鳳植 丁福秀

色掌 金鍾燮 鄭熙俊

有司 金麗述 金鎬甲

선철(先哲)들은 백성들보다 앞서 깨달은 이들이며 백세의 스승이니, 인심(人心)은 이에 힘입어 맑게 되고 세도(世道)는 이에 힘입어 밝게 된다. 그러니 선철들의 공이 실로 원대하고도 깊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선철들이 남긴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 문묘(文廟)에 배향하거나 향사(鄉祠)에 배향하는 까닭이다. 무릇 선철들께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오품(五品)을 밝히는 것일 따름이다. 오품이 밝혀지면 천하가 평온해지고, 오품이 밝혀지지 않으면 천하가 어지러워진다. 지금 우리 유교가 밝혀지지 않아 세급(世級)이 낮아졌다. 성현들을 업신여기고 경전을 천시하는 마음이 흘러넘쳐 아전들은 이익에만 급급하고 사도(邪道)만을 바라고 바래 정도(正道)로 돌아올 줄을 모른다.

아!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 서원의 장의(掌議) 가운데 해주(海州)를 본관으로 하는 오방환(吳邦煥)이 있는데 추단(楸澗) 오윤겸(吳允謙)의 후손이다. 품성이 본래 순박하고 성실하며 선철들의 성심을 깊이 사모하였다. 곡식을 넉넉히 내어 정사년(丁巳, 1977) 봄의 제사에 제공하였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았더라면 인심이 맑게 되지 못할까 무엇을 근심하겠으며 세도가 밝게 되지 않을까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세상의 표준과 모범을 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서원의 여러 임원들이 말하기를, “이처럼 훌륭한 행실이라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며 부족한 나에게 이 일을 기록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가만히 현인들을 사모하고 선인들을 높이는 의의를 감히 위와 같이 기술하였다.

정사년(1977) 봄 2월 후학(後學) 여산(礪山) 송흥섭(宋興燮)이 짓다.

집강(執綱) 임홍규(林洪圭) 송영달(宋榮達)  
 장의(掌議) 최봉식(崔鳳植) 정복수(丁福秀)  
 색장(色掌) 김종섭(金鍾燮) 정희준(鄭熙俊)  
 유사(有司) 김여술(金麗述) 김호갑(金鎬甲)